

動的 概念과 靜의 概念(제1회)

金基錫

現代思潮의 基本性格

現代의 思潮는 어떤 性格에 있어서 자기를 希臘思潮 및 啓蒙期의 思潮로부터 구별한다. 어떤 하나가 있어 그것이 무단히 움직이면서 있다고 보는 것이 現代의 思潮가 가지는 내여 노흔 性格이라고 보여진다. 모도가 움직이고 흔들리고, 뒤틀려 나간다는 것이니 움직이는 것만이 眞實한 存在이요. 움직이면서도 남을 누르고 짓밟고 나아가서는 남을 죽여 자기를 만드는 것만이 眞實한 存在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存在하는 것이 아니요.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남을 누르지 안혀서는 사라가는 것이 아니요. 사라간다고 하더라도 남을 죽여 자기를 만들지 안혀서는 나아가는 것이 아니니, 움직이라 누르라 남을 죽여 자기를 만들라 라고 웨치는 것이 現代의 思潮의 내여서우는 主張인 것이다.

이 動的 論理우에선 現代의 思潮는 動的 概念을 보이는 만흔 말을 만들어 내었고, 또 만들어 내면서 있다. 發展 過程 展開 形態 階段 止 揚 實踐 克服 □□ 危機 같은 말은 모도 現代思潮의 基本性格을 說明하는 말들이니, 이런 말들이 만히 쓰여 지고 만히 도라 보아지는 데서 우리들은 現代의 思惟의 나타난 傾向을 보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요.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存在에 대한 眞實한 認識이때 人間이 한갈래의 存在인 한에서, 人間이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人間을 人間 아닌 것으로 이끌 最大한 罪過라고 보는 것이다.

人間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쉬임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만은 어기지 못할 物理的 必然이때 모도 어떤 뒤트는 마당에 나서야 하고 또 나서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여기서 人間의 思惟에 있어 서의 靜의 概念에 대한 動的 概念의 優越을 보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모든 것이 時間에 있어서 부

단히 움직이면서 있다고 보는 것이 된다. 모든 것이 時間에 있어서 부단히 움직이면서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時間에 있어서 부단히 흐르고 흔들리고 옮겨간다는 것이니, 모든 것이『活動』『轉變』을 그 性格으로하고 주어진다 는 것이다. 우리들은 모든 것이 時間性에 있어서 있다고 보는 存在者의 性格에 대한 이 基本認識을 現代의 思潮로부터 그것이 바로 가르치는 한에서 배호 지안우면 아니 된다. 存在하는것이

時間 에 있어서 存在한다고 보는 것은 存在者의 性格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理解의 하나이니, 이 理解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한 아득한 옛 날에 있어서 벌써 찾아가진 것이다. 어떤 한 개의 理解가 『미레토스[밀레토스]』學派에게서 發見되어『아데나이』의 哲學者들을 거쳐 近代의 經驗主義派인 『베이컨』, 『콩트』, 『스펜서』, 『다윈[다윈]』에게 내려온 것을 우리들은 알기 때문이다. 움직이는 것이 存在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時間을 버서 나서 잇는 存在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時間을 버서나서 잇고, 겸하여 時間에 붓잡혀 잇는 存在를 나아놓는 어떤 超越的인 實在를 내어 세우는 見解를 사람들은 理性論 觀念論이라고 부른다. 이 理性論 觀念論으로 더부러 眞理의 認識을 다루어 내려온 것이 진실로 存在者에 對한 한 개의 根源的인 理解를 받아 내려온 그리고 오늘에 와서 덤비는 現實主義로 떠러진 나아가는 現實主義 였던 것이다.